

기의 순이익 310만 캐나다 달러, 주당이익 8센트보다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의 연간 순수익은 2,570만 캐나다 달러이며, 연간 주당이익은 54센트로 1990년의 연간 순수익 800만 캐나다 달러, 연간 주당이익 20센트와 비교하면 순수익은 3.2배, 주당이익은 2.7배로 신장한 규모이다.

이와 같이 Teleprobe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제통신사업의 이점에 기인한다. 한편, Teleprobe는 데이터통신 기기와 시스템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TWJ, 料金引下로 '92年度 黒字轉換에 赤信號

일본고속통신(TWJ)은 일본 텔레콤(JT), 제 2전전(DDI)에 이어서 장거리전화 요금의 인하를 결정하였다. JT, DDI와 같은 조건으로 평일주간의 최장거리(170km 초과)에서 20엔을 인하하여 3분당 180엔으로 결정하였다. 양지점의 NTT시내 회선교환분을 제외하고는, 10엔에 11.5초간 통화를 할 수 있다. 야간과 토·일·공휴일의 요금도 같은 거리에서 10엔을 인하하였다. 이러한 요금인하는 3월에 전기통신심의회의 인가를 거쳐, 4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계계 NCC(신규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두 수입의 감소를 각오한 가격의 인하나, TWJ에게는 특히 영향이 크다. 1990년도와 1991년도 중반기에 중계계 NCC중에서 유일하게 경상적자를 기록하여 1992년에는 흑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TWJ에게는 약 30억엔의 감소요인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전화를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단기적으로 대폭적인 수입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 같다.

郵政省, NTT의 移動通信分離에 따른 對策 講究

우정성은 NTT의 이동통신사업의 분리에 따라 휴대전화 등의 무선국면허에 대

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전파법에서는 무선국 면허의 승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회사는 휴대전화 등의 면허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현재 가입자수를 기초로 해도 NTT가 1992년 7월 1일에 이동통신부분을 분리할 때 약 70만대의 단말, 다시 이 회사를 1993년 여름에 전국 9사로 분리할 때, 수도권 이외에 약 40만대의 단말에 대해 면허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수수료만도 100억 엔에 이르고 있다. NTT가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회사를 만드는데 많은 부담이 있게 된다.

이에 우정성은 우정대신이 인정한 제 1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 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각의결정에서 할 수 있는 정령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여 NTT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NTT, VPN 서비스를 9월에 開始

NTT는 9월 초순을 목표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을 굳혔다. 1990년에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NCC간에 접속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 NCC에 대해 탄력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지리라고 판단하여, VPN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텔레콤, 1991년도 賣出額 11.6% 增加

최근에 발표된 프랑스 텔레콤의 영업실적에 관한 속보치에 따르면, 1991년의 매출액은 1990년보다 11.6% 신장한 1,250억 프랑이며, 부가가치세와 국고보조금 공제후의 순이익은 13억 프랑(1990년도는 2.2억 프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화가입자수는 약 100만이 증가하여 총가입자수는 2,910만에 달하고, 가입회선의 디지털화율은 80%에 달하게 된다.